해남군 "'AI·에너지' 중심 농어촌수도 도약"

내년 본예산 9090억 편성… 올해보다 117억 증액

에너지자립도시·AI산업 중심지등 군정비전 제시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는 지난 3일 해남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 군정의 목표를 AI·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변화 속에서 신성장산업과 농어업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해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천명했다.

명 군수는 "올해는 농어업 기반 위에 AI와 에너지 산업이 결합된 농어촌수도 해남, 그 1%의 가능성이 99%의 현실로 다가온 한 해였다"며 "첨단산업과 미래농어업, 그리고 농어촌인프라와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군정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남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자립도시로 조성해 나갔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재생에너지특별법과 연계해 RE100 국가산단 완성과 지산지소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화원산단 해상풍력 거점 확보 등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AI산업 중심지 도약 ▲생산과 유통, 신사업 전환을 통한 미래농어업의 실현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한 기후변화 농업선도 ▲역사문화자연을 활용한 체류형 복합 관광·스포츠도시 조성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전세대가 행복한 농어촌 잘사니즘 실현 ▲유라시아의 발코니 교통망 확충 등을 분야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편 군은 2026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1.31%(117억원) 증액한 9090억원 규모로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39억원 증가한 294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2078억원(22.86%), 국토개발·산업·교통 분야 882억원(9.7%), 환경 분야 787억원(8.66%), 일반공공행정·안전분야 695억원(7.66%), 문화·관광·스포츠분야 573억원(6.3%) 순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영암군 '핵심사업 5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

사업비 34억4000만원… 국비 확보 노력 결실

어선건조 지원센터·국제 바둑연수원 건립 포함

전남 영암군이 '2026년도 본예산'에 지역 핵심사업 5건의 사업비 34억4000만원 반영을 일궈냈다.

지난 2일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하며 총 1333억원 규모로 군이 제안한 사업비의 2026년 국비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의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총사업비 126억원)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400억원)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총사업비 380억원)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총사업비 424억원) ▲도갑사 노후설비 개선(총사업비 3억원) 사업비 일부를 반영했다.

이전까지 국회가 군의 건의 사업 중 평균 1~2건을 반영해 왔던 것과는 다른 괄목상대할 변화다.

민선시대 이후 최대 규모 본예산 확보를 두고, 군은 정부 정책기조 맞춤형 사업 건의, 국회·중앙정부 소통 강화 등 국비 확보 적극행정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26일 우승희 영암군수와 예산 담당 공직자들이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를 오가며 지역 핵심 사업의 당위성 등을 알리며 소통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영암=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자원봉사자의 날' 퍼포먼스 전남 보성군은 지난 1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12월 '달모임'을 열고 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기념해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진은 김철우 군수와 참석자들이 자원봉사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구미시, 고아농공단지에 '아름다운거리'

노후 시설·경관 재정비… 102억 투입 2027년 완공

경북 구미시는 1988년 조성된 고아농공단지(오로리 60-18)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경관 재정비를 위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40년 가까이 된 산업환경을 정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패키지 공모'에 선정되며 추진동력을 얻었다.

총 사업비는 102억1000만원으로, 국비 60억원과 시비 42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착수해 사업비 28억6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노후도로 정비 ▲보행 친화형 인도 확충 ▲가로등 및 안내판 정비 ▲근로자 쉼터 조성 ▲CCTV 설치를 포함한 안심거리 조성 ▲낡은 구조물 개선 등이다.

시는 기반시설 정비 뿐 아니라 경관·안전·휴식 기능을 고루 갖춘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청년문화센터'도 건립된다.

총 사업비는 73억5000만원이며, 연면적 1443.66㎡ 규모(지상 2층)로 식당, 회의실, 헬스장 등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착공은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산업단지내 교류·소통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과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황새 보호·서식지 복원 전략 만든다

예산군, 생태 연구결과 발표

무논 조성·먹이터 확충 제안

충남 예산군은 최근 광시면 황새마을에서 진행된 황새 보호와 서식지 복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황새와 지역 생태계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황새 보호 현황과 생태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팀의 계절별 조류 모니터링 결과 조사기간 동안 군 전역에서 총 88종 3만1995개체가 기록돼 지역이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겨울철에는 56종 3만353개체가 관찰돼 군이 주요 겨울철새 도래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지역임이 드러났다.

황새마을 인근에서는 67종 2만7753개체가 관찰돼 핵심 서식지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백월산 일대에서는 국가보호종 9종의 번식·서식이 확인돼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전 지역임이 증명됐다.

황새 보호를 위해서는 친환경 논 확대와 무논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먹이원을 확보하고 미꾸라지 공급과 어류 방사 등 실질적 먹이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불법 낚시도구 수거 ▲전선 충돌 방지 장치 설치 ▲농약 사용 저감 등 서식지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인 관리 요소로 꼽혔다.

연구에서는 황새공원 일대의 4만3201㎡ 규모 무논습지가 백릉산과 연계된 생태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산림 구조는 포식동물의 이동을 완충하는 자연적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군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핵심 서식지 정비, 먹이터 확충, 위협요인 감축, 국제적 협력 강화 등 종합적인 보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례 조사와 추가 연구를 통해 과학적 자료 기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황새와 생태환경의 상생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예산=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청양군, 내년 2월까지 운영

충남 청양군이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각종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신고 유형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분야다. 대설 분야에서는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을, 한파 분야에서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화재 위험과 관련해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을,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수소전시회 'H2MEET' 개막

경남도, 기업 통합홍보관 운영

경남도는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수소 전시회 'H2MEET(H₂Mobility+Energy+Environment+Technology) 2025'에 참가해 도내 수소 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도는 범한퓨얼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이플로우, 캠프티, 하이닥코리아, 광신기계공업, 대하, 비엠솔루션, 포엑스 등 도내 수소 분야 핵심기업의 제품 전시와 부스 설치를 지원한다.

통합홍보관을 운영해 국내·외 기업 간 투자·구매 상담을 통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경남도 수소산업 현황과 지원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은 수소 산업 관련 기업과 수소 전문기업의 수가 수도권에 이어 전국 2위이며,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활용 전 주기에 걸쳐 기업과 인프라를 고루 갖춘 지역이다.

창원=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순천시, '사계절 순천만 갈대축제' 전환 잰걸음

13·14일 '겨울철새 탐조 특별판'

심화 탐조·해설 프로등 선보여

전남 순천시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겨울철새 탐조 특별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가을 갈대축제의 연장선으로,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될 '사계절 갈대축제'의 시범 운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겨울의 순천만에는 현재 흑두루미 약 8600마리를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독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 철새가 대거 도래하고 있어 이번 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겨울철새 서식지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조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화 탐조 프로그램 '특별한 탐조' ▲해설 프로그램 '흑두루미와 춤을' ▲인류와 독수리의 관계를 조명하는 특별 강연 '독수리의 하늘길' 등이 마련됐으며, 겨울철새의 생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했다.

순천=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영광군,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육성 박차

참여마을 19일까지 모집

최대 1500만원 지원키로

전남 영광군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6년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사업'에 참여할 지역내 마을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사업'은 전입 10년 이내 귀농·귀촌 가구가 포함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경관을 정비하고 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규 정착민과 기존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최대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 가운데 마을경관 조성비는 1000만원 이내, 융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500만원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융화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마을잔치, 귀농·귀촌인 환영행사, 공동 텃밭 가꾸기, 멘토·멘티 결연, 재능기부 공연·교육, 마을 역사·문화 탐방 등 주민 간 이해와 소통을 돕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류를 갖춰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광=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보배섬 국화축제에 참가한 외국인 홍보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외국인 SNS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전남 진도군은 최근 외국인 소셜미디어 홍보단(SNS 인플루언서) 20명을 초청해, 이틀 동안 진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홍보 여행(팸투어)을 진행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6년에 개최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보배섬 국화축제'를 해외 관광시장에 소개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해외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 대상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다수의 구독자(팔로워)를 보유한 외국인이며, 직접 경험한 진도를 자신의 계정(채널)을 통해 소개한다.

홍보 여행 첫째 날에는 진도군 주요 관광지인 보배섬 국화축제장과 진도타워를 방문했으며, 둘째 날에는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회동 관광지와 운림산방을 찾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장흥군, 13일 민족음악 거장 '최옥삼' 창작극 선봬

전남 장흥군 출신의 민족음악의 거장 최옥삼 명인의 삶을 조명하는 음악창작극 '최옥삼'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장흥 빠삐용zip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최옥삼 명인의 업적을 기리고, 장흥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도로도 평가된다.

최옥삼(1905~1956) 명인은 장흥읍 건산리 태생으로, 남도 음악을 근간으로 해 남과 북을 오가며 민족음악을 완성한 위대한 예인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고향 장흥에는 생가터에 오직 표지석만이 남아 그의 업적에 비해 제대로 된 기념 공간이나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으로 알려졌다.

문화공감 에움과 창작공간 해우는 최옥삼 명인의 고향 장흥에서 그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고자 이번 음악 창작극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 군수는 "장흥읍 대표하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인 빠삐용zip에서 최옥삼 명인 업적을 재조명하는 공연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군민들이 문화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장영채 기자 jyc@siminilbo.co.kr

홍성군, 16일 '님의침묵' 창작음악극 공연

충남 홍성군은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작음악극 '님의침묵:시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침묵을 품는다'을 선보일 예정이다.

'님의침묵'은 문화도시 홍성의 '2025 로컬콘텐츠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으며, 한용운 시인의 삶과 시를 바탕으로 창작된 음악극이다.

작품은 총 4막으로 구성되며, 1막은 유년기부터 출가, 2막은 3.1운동 참여와 투옥, 3막은 시 창작과 불교 개혁, 그리고 4막은 마지막 순간으로 구성되며, 각 장면은 한용운의 실제 시('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등)을 인용하거나 시의 정서를 음악으로 재해석한 오리지널 곡으로 전개된다.

또한 성악, 기악 낭독, 연기를 아우르는 다원예술 방식으로 무대화되며, 문학적 상징성과 역사적 사실을 서사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교육적 의미와 공연예술적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예약 없이 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군은 한용운 선생의 고향으로 지역이 지닌 독립운동 인물자원을 창작예술로 확장해왔다.

홍성=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연말까지 20% 할인 행사

경남 산청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산엔청쇼핑몰은 올해 말까지 '전품목 2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매출 70억원 달성에 따른 고객 감사와 연말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쌀, 계란, 고구마, 산청흑돼지, 약초류, 벌꿀, 곶감 등 다양한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대규모 할인전을 준비했다"며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강진군 노인회, 경로당 여가프로 성과 공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주관으로 2025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가 지난 3일 강진읍 교촌리에 있는 강진군노인회 게이트볼장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배움의 성취감을 공유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 경로당에서 익힌 실력을 지역 노인들이 함께 모여 나누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즐거운 노년! 활기찬 경로당'을 슬로건으로 지역내 342개 경로당 중 51개의 팀으로 구성된 250여명이 참가해 미술·원예 교실, 노래율동, 리듬난타, 건강체조, 민요체조, 코끼체조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원 군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에서도 경로당 활성화와 여가 지원을 강화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